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행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ti-Consumption Lifestyles for Consumer Happiness*

성영애(Sung, Young-Ae)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소비절제' 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절제는 자발적-비자발적, 개인적-사회적 동기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지, 동기가 다른 소비절제가 소비자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된 20-50대 719명에 대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비자의 행복은 소비자로서의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소비절제가 동기에 따라 분류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유형의 소비절제가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첫째,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동기에 따라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자발적인 소비절제유형으로 (1)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2)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3)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4)자급자족형 소비절제, (5)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부분적으로 자발적인 소비절제로 (6)선택적 소비절제,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유형으로 (7)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와 (8)강박적 소비절제로 분류되었다. 8개 요인에 의해 소비절제 총 분산의 65.30%가 설명되었다. 둘째, 소비행복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복을 증가시키는 소비절제는 자발적인 소비절제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는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유형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발적이지만 사회적 동기가 작동하는 소비절제유형인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의 모든 하위영역의 행복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낮추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분적으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의 선택적 소비절제 또한 소비행복을 증진시키며 일반적 행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비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인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는 예상하였던 바대로 소비행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또 다른 유형인 강박적 소비절제는 소비행복보다는 일반적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감소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발적 동기 강화전략이 유용한데 특히 재무관리동기 부여가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동기의 유발이 소비절제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었다.

주제어: 소비절제, 소비행복, 행복, 자발적 동기, 비자발적 동기

1. 서론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의 평균 가계소득은 2012년과 비교해 4.4% 증가했지만 가계소비지출은 0.2%만 증가하였다. 특별한 경제위기 없이 가계소비지출이 3년 연속으로 1% 이내로 성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0389).

장한 것은 1970년 관련통계가 나온 이래 처음이다 (문화일보 2015.01.05). 소득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이 더 낮은 것은 소비절제현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일찍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도, 최근 적극적인 경제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4년 12월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계의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월대비 3.4% 감소했다(글로벌비즈 2015.01.30). 이러한 일본도 가계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0%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2008년 4분기까지는 50%대를 넘었지만 2010년 1분기 이후에는 5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문화일보 2015.01.25).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보다도 소비감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소비절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재무전략 중의 하나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인구학적 변화, 즉 평균수명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고령화현상은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여 장기적인 소비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소비절제는 일종의 생활패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되고 있다.

소비절제의 필요성은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환경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와 관련되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문제이다.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낭용문제와 쓰레기문제는 소비행동과 관련되며, 소비절제는 이러한 과잉소비에 대한 저항과 친환경소비행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Iyer & Muncy 2009, Chatzidakis & Lee 2012). 즉 소비절제는 경제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기가 작용하

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로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확대될 것이라 기대된다.

위와 같이 소비절제의 동기는 다양하다. 소비절제에는 개인적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기가 작용한다(Iyer & Muncy 2009). 소비절제는 자발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지기도 한다(Albinsson, Wolf & Dennis 2010). 따라서 소비절제를 하는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절제행동이나 성향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소비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풍요로운 사회에서 이제까지 지속적인 성장만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다.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의 소비자의 소비절제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절제와 관련되어 소비자의 성향이나 태도는 소비자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만족, 효용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행복이다. 소비절제는 소비의 증가가 소비의 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전통적인 경제학에 비추어볼 때는 소비자의 행복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다양한 소비자의 출현은 소비증가가 반드시 소비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절제의 동기가 다양하다면 소비자 만족이나 행복 또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득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소비절제를 설명한다면 소비자의 행복도는 매우 떨어질 수 있으나 소비절제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면 소비자의 행복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절제의 다양한 동기를 고

려하여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소비절제'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절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라이프스타일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절제성향과 이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감을 분석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동기의 소비절제는 소비 감소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소비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소비자행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소비경험이나 소비 체험,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소비자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이와는 반대로 소비를 절제하는 것이 소비자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2.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드러나는 소비자의 활동, 관심, 의견 등을 의미한다. 소비절제는 소비를 감소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소비절약, 소비감, 소비조절 등의 개념과 유사하며 과잉소비, 과소비와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다. 소비를 절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소비절제에 대한 관심과 의견 또는 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소비'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는 돈을 소비하는 방식,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국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절제의 동기를 고려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간의 국내연구들은 경제성장시대를 배경으로 소비절제나 소비통제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반대의 현상, 즉 소비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충동소비(김정훈, 이은희 2002; 이민희, 홍은실, 한경순 2009 등), 강박적 소비(송인숙 1991; 김영신 1998; 김영신 2001; 강이주 2004; 채서영, 임성문 2014 등), 과소소비(박민정 2009; 박명숙 2012 등) 등 소비절제의 반대되는 현상을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와는 달리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서 근검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두경자, 홍계옥 1998). 한편 사회적 동기, 주로 환경적 동기에 의해 자원절약을 다룬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인하여 사용이나 재사용, 자원 절약 등을 다루고 있다(여정성 1996; 유두련 2002; 노영래, 김시월 2002; 조은미, 최남숙 2003; 이성림, 박명희, 이은영 2008; 이미정 등 2011; 류미현 2014 등).

소비절제에 관한 해외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절제는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생활방식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Iyer & Muncy(2009)는 소비절제는 특정브랜드나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 소비절제와 전반적인 소비감소를 의미하는 소비절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적 동기에 의한 소비절제와 사회적 동기에 의한 소비절제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독의 소비자의 소비절제현상을 질적으로 탐색한 Albinsson, Wolf & Dennis(2010)에서는 소비절제의 유형을 자발적 유형과 비자발적 유형, 적극적 유형과 소극적 유형, 불매운동과 저항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Nepomuceno & Laroche(2015)는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에 검소한 생활방식(frugality), 자발적 간소화(voluntary simplicity)와 강박적인 절제(tightwadism)가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동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Nepomuceno & Laroche(2015)에 의하면 검소한 생활방식(frugality)은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생활방식이다. 즉 검소한 생활방식은 장기적인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서 소비를 조절하고 소비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축을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생애소비 만족의 극대화를 위한 재무설계전략의 하나로써 취하는 자발적인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간소한 생활방식(voluntary simplicity)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단순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채택하는 생활방식을 말한다(Nepomuceno & Laroche 2015).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구매행동을 줄이고,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자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간소화가 다른 맥락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간소화와 비자발적인 간소화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간소함이 나타나며,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간소함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송인숙 1999).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은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발적 간소화는 정신적 성숙과 자아실현을 위한 간소함,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간소함, 사회와의 복잡한 관계를 피하기 위한 간소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송인숙 1999).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발적으

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은 내적동기, 환경적 동기, 복잡함 회피 동기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 간소화는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모두 작용하는 것이다.

강박적으로 절제하는 생활방식(tightwadism)은 “돈을 쓰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소비를 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즉 돈에 대한 집착과 강하게 관련이 있으며 돈을 지불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Nepomuceno & Laroche 2015). Furnham & Okamura(1999)는 돈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감정적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Forman(1987)의 연구에 근거하여 돈과 관련된 정신병리에 돈을 자린고비처럼 쓰는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다. 강박적 소비절제는 소비절제가 심리적 또는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소비절제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등 다양한 동기 또는 목적을 갖는다. 그렇지만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의 공통점은 모두 최소한 시장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Nepomuceno & Laroche 2015, p.656).

한편 최근 소비트렌드로서 작은 사치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소비절제와 관련된다. 작은 사치는 사치스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만족감을 주는 소비로서 불황형 소비행태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014).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규모가 큰 소비를 통해서는 만족을 추구하기 어려우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작은 사치현상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필수소비의 경우에는 절약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부 소비의 경우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 양면

적 특성을 가진다(황혜정 2014). 작은 사치 현상은 과잉소비시대에서 소비절제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자의 행동적응과정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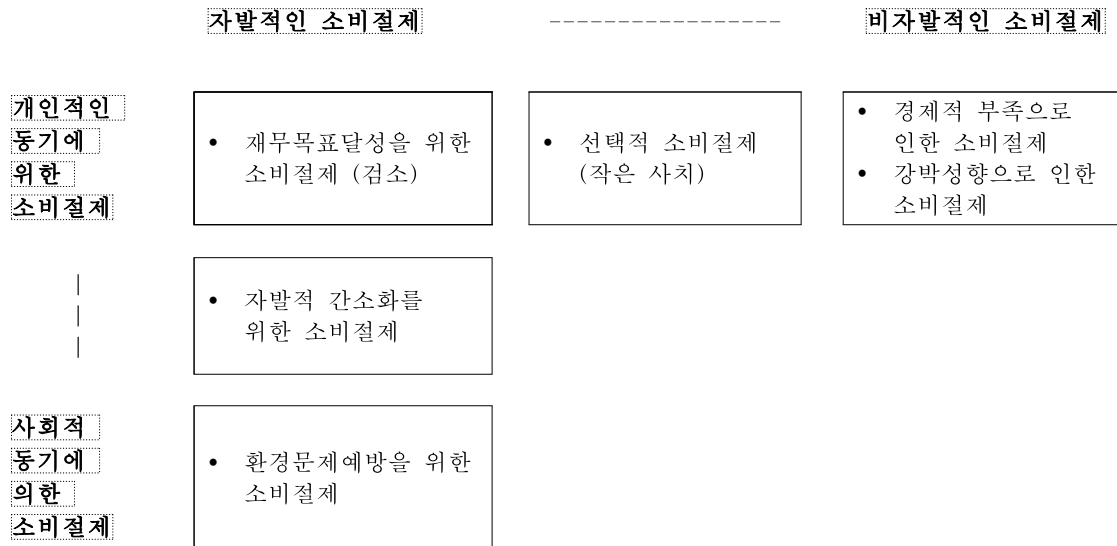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절제의 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 1>과 같다. 소비절제는 소비감소라는 공통의 결과로 이어지지만 소비절제를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자발적 동기와 비자발적 동기,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공익적) 동기, 경제적 동기와 비경제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적 재무목표를 위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작은 사치),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자란고비성향으로 인한 소비절제는 개인적 동기에 의한 소비절제 스타일이다.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사회적(공익적) 동기에 의한 소비절제로 볼 수 있다.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는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모두 작용하는 라이프스타일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소비절제 유형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적용

되어 분류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자의 행복

2.2.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복

소비자의 행복은 소비자로서의 행복(이하 소비행복)과 인간으로서의 행복(이하 일반적 행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행복은 제품에 대한 만족과는 달리, 소비생활에 대한 또는 소비생활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기쁨이나 만족을 의미한다. 소비절제는 동기가 무엇이든 소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은 바로 소비효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행복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소비자학이나 소비심리학에서의



<그림 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분류

소비행복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소비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행복을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행복이란 소비의 양적인 증가와 정비례하지는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김기옥(2007)에서는 “소비생활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하고 소비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으며, 시장환경이 자율성을 허용한다고 인지하고, 타의가 아니라 자율적 동기에 의해 구매할수록 소비행복이 높아진다”(p. 47)고 하였다. 김기옥(2010)은 후속연구에서도 소비생활에서 얻는 행복이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비행복이란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과 자율적 판단으로 질적 양적으로 높고 만족스러우면 변형해나가는 성숙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것”(김기옥 2010, p. 167)으로 정의내렸다. 즉 소비자율성, 소비자신감, 자율을 허용하는 시장환경에 대한 인지, 자율적 구매동기가 소비행복의 중요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소비행복과 관련해서 자기결정성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절제의 자발성이 소비행복과 관련됨을 시사해준다.

최근 소비행복 척도를 개발한 장현선(2014)의 연구에서도 소비행복의 구성요소를 소비능력 요인, 소비공유대상 요인, 소비자율성 요인, 소비자자신감 요인이라고 하였다. 소비능력 요인이란 ‘소비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능력(장현선 2014, p.148)’으로서 소득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지에 맞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작은 사치를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대상의 경제적 요구를 허락할 수 있는 여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소비공유대상 요인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비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소비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을 의미하며, 소비자율성 요인은 타인의 간섭이 없이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비권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소비자신감 요인은 동일한 금액으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상에서 소비자행복에 관한 정의를 보면 소비행복은 소비의 양이라는 단일차원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소비행복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율성과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비절제의 동기는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2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일반적 행복

소비절제의 동기에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동기가 있고, 개인적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기가 있다면, 소비절제는 소비행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복과도 관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환경적 동기에 의해 소비절제를 한다면 사회에 대한 기여나 보람 등으로 인하여 행복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소비수준의 향상이 행복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이스터린의 역설과도 관련된 다(Easterlin 1974). 인간의 행복은 소비수준이 높아진다고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여러 생활영역에서의 활동내용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반적 행복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서인국과 구재선(2011)에 의하면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으로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때 삶의 만족이란 개인적 삶의 만족, 관계적 삶의 만족, 집단적 삶의 만족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은 소비행복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생활영역에서의 행복을 포함하는 개념 이이라고 할 수 있다. 자발적인 간소함과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본 Boujbel & D’Astous(2012)은 자발적 간소화를 생활방식으로 채택한 사람들의 생

활만족도는 소비욕망을 줄임으로써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비절제의 다양한 유형, 즉 무엇을 위해 어떻게 소비절제를 하는가 또한 행복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로 소비절제와 관련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절제하는 동기는 다양하다는 관점에서 소비절제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의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동기로 분류한 <그림 1>과 같이 적절히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연구문제1을 통하여 분류된 각 유형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은¹⁾ 소비자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측정도구

3.2.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란 소비나 구

매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를 말한다.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문항은 Nepomuceno & Laroche(2015)에 따라서 Lastovicka et al.(1999)의 김소한 소비생활을 추구하는 성향 척도(Frugality scale), Iwata(1997)의 자발적 간소화 척도(voluntary simplicity scale), Rick et al.(2008)의 강박적인 절제생활을 추구하는 성향 척도(Tightwad-Spendthrift scale)를 이용하였다.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문항은 이철우(1999)의 소비욕구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절제 문항은 박운아(1997), 김시월(2003), 성영애(2005) 등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고, 작은 사치 현상과 관련된 문항은 황혜정(2014)에서 내린 정의 및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2.2 소비자행복

소비자행복이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행복은 김기옥(2007)을 근거로 김기옥(2010)에서 소비생활복지 기준변인으로 이용된 소비생활만족, 소비자율성, 소비자신감 척도 9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2.3 일반적 행복

일반적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의미한다. 행복이란 주관적 안녕감으로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다(서인국, 구재선 2011). 본 연구에서는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MOSWB: Concise

1) 소비절제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은 서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소비절제가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동기가 높으면 다른 동기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동기로 소비절제를 시작했지만 비경제적 이유를 찾아 그것이 소비절제의 동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 분석에서는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소비자를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 짓기보다는 소비자에게 나타나는 성향을 기초로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9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3.3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패널 조사업체인 엠브레인을 통하여 2016년 1월 28일 - 2월 1일 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할당표집하여 조사하였는데, 총 71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문제1을 위해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를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소비절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을 비교하였다.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의 회귀계수와 기본모형 대비 R2의 변화량을 통하여 각 유형의 소비절제영향을 정도를 비교하였다.²⁾ 즉 기본회귀모형은 수식(1)과 같으며, 소비절제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한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은 수식(2)와 같다.

$$H_i = a + b_i \sum X_i + e_i \dots\dots\dots (1)$$

$$H_i = a + b_i \sum X_i + b_j C_j + e_i \dots\dots\dots (2)$$

이때 H는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 및 각 하위영역

의 행복을 의미하고, X_i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계소득, 주택보유여부 포함하였다. C_j는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을 말한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성별 분포와 연령분포는 고른 편이다. 조사대상의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어서 대학재학이상이 87.9%에 달한다. 본 연구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비절제에 대한 교육의 영향을 통제하는 효과는 있다. 직업분포는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아 54.0%를 구성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직업의 안정성도 높은 집단이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이 59.5%로 많았고, 가구원수는 4인 가구의 비중이 43.3%로 가장 높았다. 월가계소득의 분포를 보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비중이 24.3%로 가장 높았다.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5.6%였다.

IV. 연구결과

4.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분류와 소비절제성향의 수준

4.1.1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분류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동기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48문항

2)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항목	사례수	%	특성	항목	사례수	%
성별	남자	364	50.6	혼인 상태	미혼	265	36.9
	여자	355	49.4		기혼	428	59.5
연령	20대	152	21.1		이혼/사별	26	3.6
	30대	181	25.2	가구원수	1인	60	8.3
	40대	206	28.7		2인	79	11.0
	50대	180	25.0		3인	197	27.4
4인	311	43.3					
교육 수준	고졸이하	87	12.1	5인 이상	72	10.0	
	대학재학이상	565	78.6	월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52	7.2
	대학원이상	67	9.3		300만원 미만	112	15.6
직업	상시근로소득자	388	54.0		400만원 미만	175	24.3
	임시근로소득자	24	3.3		500만원 미만	136	18.9
	자영업자(10인 이하)	71	9.9		700만원 미만	156	21.7
	사업자(11인 이상)	12	1.7		700만원 이상	88	12.2
	주부	94	13.1	주택보유 여부	보유	472	65.6
	무직/은퇴	34	4.7		미보유	247	34.4
	학생	76	10.6	전체		719	100.0
	자유직등	20	2.8				

의 소비절제관련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공통성이 낮거나 신뢰도를 저해하는 10문항을 제외하였다. 〈표 2〉는 38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인의 수는 고유 값이 1 이상이 되는 8개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6개의 요인-재무 목표를 위한 소비절제와 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요인분석의 결과 2개의 요인이 각각 이분되어 총 8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즉 〈그림 1〉과 같이 분류한 소비절제 유형 중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는 각 1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재무

목표를 위한 소비절제와 자발적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는 각각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8개 요인에 의해 총 분산의 65.30%가 설명되었으며, 요인별 문항 간 신뢰도는 0.777-0.889로 높은 편이었다. 각 요인의 명칭은 선행연구결과와 문항 특징을 반영하여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분산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1은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로서 총 분산의 23.08%를 설명하여 주었다.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품을 사용하거나 자원을 아껴 쓰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필요한 양만큼 구매는 등 전반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요인2는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로서 총 분산의 12.07%를 설명해준다. 갖고 싶거나 소비하

〈표 2〉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요 인	문 항	요인 적재량	분산의 설명력	Cronbach's α			
요인1 환경문제에 방을 위한 소비절제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재활용물품을 사용한다.	.818	23.082	.889			
	나는 물이 부족한 지역이나 나라를 생각해서 물을 아껴서 사용한다.	.787					
	나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778					
	나는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762					
	나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이다.	.735					
	나는 물건을 살 때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한다.	.718					
요인2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은 많은데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857	12.069	.884			
	나는 물건을 사는 것이 즐겁지만 경제적 이유로 참고 지낸다.	.837					
	나는 경제적 이유로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을 거의 하지 못한다.	.796					
	사고 싶은 것을 못 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소비를 줄이고 있다.	.757					
	물건이나 서비스구입을 하면 내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702					
	돈만 있다면 나는 사야 할 것이 아주 많다.	.700					
요인3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나는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적이 거의 없다.	.782	9.729	.854			
	나는 돈이 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지 않는다.	.727					
	나는 어떤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후에 쇼핑을 한다.	.708					
	나는 간소한 생활양식을 고수하며 주로 필수품만 구매한다.	.679					
	나는 물질적 소유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더 관심이 있다.	.579					
	나는 사치스럽게 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소한 생활양식을 채택할 것이다.	.479					
요인4 강박적 소비절제	간소한 생활양식 덕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65	6.450	.845			
	나는 돈을 쓰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815					
	나는 돈을 쓰면 괴롭다.	.810					
	가족들이 돈을 쓰면 아깝다.	.755					
	돈을 쓰면 걱정이 되어서 써야 할 곳에도 돈을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694					
	가족들이 돈을 아껴 쓰도록 잔소리를 자주 하거나 통제한다.	.687					
요인5 근검절약 으로 인한 소비절제	나는 돈을 쓰는 것이 아깝다.	.567	4.149	.777			
	내가 갖고 있는 자원(돈, 물건, 시간 등)을 잘 사용하면 기본이 좋아진다.	.739					
	아직 쓸 만한데 버려지는 물건이 많다고 생각한다.	.722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다룬다면 결국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689					
	내가 이미 갖고 있는 물건을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새 물건을 사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610					
	요인6 선택적 소비절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작은 사치를 즐긴다.			.831	3.716	.817
보통은 돈을 아껴 쓰지만 스트레스 해소나 나를 위로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		.824					
나에게 의미 있는 소비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소비한다.		.765					
비싸지는 않지만 호사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 한 두 개 짝은 소비하고 있다(예: 커피, 디저트, 운동화 등).		.729					
요인7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나에게는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구매를 절제하고 있는 물건이 있다.	.764	3.578	.858		
		나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킨다.	.686				
	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원하는 물건의 구매를 기꺼이 미룰 것이다.	.649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해 신중하다고 생각한다.	.606					
	노후를 생각해서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있다.	.580					
	요인8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전 제	나는 미래에는 내가 쓰는 물건 (옷이나 도구 등)은 직접 만들어 쓰고 싶다.	.857			2.526	.779
나는 미래에는 내가 먹을 것을 직접 농사하여 조달하고 싶다.		.812					
			65.300				

는 것이 즐겁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기존의 자발적 간소화 척도는 요인3과 요인8로 분류되었다. 요인3은 기존의 척도에서 자급자족적인 행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요인3은 기존 척도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라고 명명하였다.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돈이 있더라도 필요한 것만 구매하며 간소하게 살려고 하며 이러한 생활방식이 독립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성향이다. 총 분산의 9.73%를 설명해주는 요인이다. 한편 요인8은 선행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간소화된 생활양식을 측정하는 문항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인데,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거나 농사를 하려는 태도를 포함하므로 '자급자족적인 소비절제'라고 명명하였다.

요인4는 '강박적 소비절제'로 총 분산의 6.5%를 설명한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고 피로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다. 자신의 소비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돈을 쓰는 것도 간섭하는 스타일이다.

선행연구에서 재무목표달성을 위한 검소한 생활방식은 요인5와 요인7로 분류되었다. 요인5는 미래의 재무목표나 노후를 위한 소비절제 등과 관련된 문항과는 분리되어 검소한 태도와 절약정신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요인5는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로 명명하였다. 검소한 태도와 근검절약정신이 배어있어 소비를 절제하는 성향으로 돈을 잘 사용하거나 절약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 요인은 총 분산의 4.15%를 설명한다. 요인7은 선행연구에서는 요인5와 같은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으로서 총 분산의 3.68%를 설명한다. 요인7은 미래와 관련되어 소비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소비를 지연시키는 스타일이므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라고 명명하였다.

요인6은 '선택적 소비절제'로서 보통은 돈을 아껴서 쓰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작은 사치를 추구하거나 자기만족을 주거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스타일이다. 비싸지는 않지만 호사스러운 느낌을 주는 소비를 한 두 개 짝은 한다. 총 분산의 3.72%를 설명한다.

4.1.2 소비절제성향의 수준과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의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준 유형은 7점 만점에 5.43점을 나타낸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성향은 선택적 소비절제성향(4.80점)과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성향(4.89점)이다. 가장 점수가 낮은 성향은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인데 이도 중간점인 3점보다는 높은 3.30점이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이 소비자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기 전에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은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이 높으면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성향도 높은 편이다. 특히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와 자발적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간의 상관계수는 .67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즉 자발적으로 간소화된 생활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미래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지연시키는 성향도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

〈표 3〉 유형별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

동기	소비절제유형	평균	표준 편차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자금 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
자발적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5.43	0.90	.539***	.476***	.170***	.280***	.241***	.167***	.001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4.80	1.02		.674***	.270***	.472***	.177***	.154***	.193***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4.51	0.97			.380***	.474***	.027	.023	.166***
	자금자족형 소비절제	3.58	1.47				.346***	-.036	.040	.230***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4.19	1.10					.097**	.030	.230***
부분적으로 자발적	선택적 소비절제	4.89	1.03						.114**	-.173***
비자발적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4.54	1.12							.369***
	강박적 소비절제	3.30	1.09							

* p < .05 ** p < .01 *** p < .001

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자금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성향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모든 유형의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거나 (+)인 것은 아니다. 선택적 소비절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는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성향과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거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자발적 소비절제성향간의 상관관계는 (+)이면서 강도도 비교적 높으나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강도가 약한 편이다.

4.2 소비절제성향이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대한 회귀분석에 앞서

행복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소비행복척도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13이며, 소비생활만족, 소비자율성, 소비자신감 문항 간 신뢰도는 .886, .885와 .840이다. 일반적 행복척도의 신뢰도도 매우 높는데, 전체 문항신뢰도는 .883이며,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문항간의 신뢰도는 각각 .876, .919와 .856이다.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이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기본회귀모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계소득, 주택보유여부를 포함한 모형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운데 유의미한 변인은 종속변수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여러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과의 비교를 위해 모든 기본모형에 모든 변인을 포함하였다.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통제하는 효과를 갖

〈표 4〉 소비자행복과 일반적 행복 척도의 신뢰도

척도	하위척도	문항	Cronbach's α
소비 행복	전체문항		.913
	소비생활 만족	나의 소비생활은 대체로 내가 희망하던 이상(ideal)에 근접한다.	.866
		나의 소비생활 조건은 좋은 편이다.	
		나는 내 소비생활에 만족한다.	
	소비자유성	나는 소비생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유를 느낀다.	.885
		나는 소비생활에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소비생활을 하는 편이다.	
	소비자신감	나는 소비생활을 잘 할 자신이 있다.	.840
		주변 사람들은 내가 소비생활을 잘 한다고 인정한다.	
		나는 새로운 소비기술을 쉽게 익힌다.	
일반적 행복	전체문항		.883
	삶의 만족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876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한 집단(내가 속한 집단-직장,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적 정서	즐거운 감정	.919
		행복한 감정	
		편안한 감정	
	부정적 정서	짜증 (역코딩)	.856
		부정적인 감정 (역코딩)	
		무기력감 (역코딩)	

는다.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에 대한 분석은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별로 각각 실시하였다. 지면상 모든 회귀모형의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워 〈표 5〉는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의 회귀계수(베타 값), 모형 R^2 과 기본회귀모형대비 소비절제포함회귀모형의 R^2 의 변화량을 제시하였다.

4.2.1 소비자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대한 소비절제성향의 영향

먼저 소비자행복 전체에 대한 각 유형별 소비절제성향의 영향을 살펴보면 강박적 소비절제를 제외한 모

든 소비절제성향이 소비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는 소비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머지 소비절제성향은 소비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소비행복도는 낮은 반면,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소비행복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절제성향 중 R^2 의 변화량이 가장 큰 소비절제성향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은 소비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반적 행복에 대한 소비절제성향의 영향을 살펴보면 소비행복에 대한 영향과는 일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절제유형은 자급자족형 소비절제이다. 나머지 소비절제성향은 일반적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인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와 부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은 일반적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인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절제성향 중 R^2 의 변화량이 가장 큰 소비절제성향은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박적 소비절제는 소비행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일반적 행복을 감소시키는 성향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소비절제성향이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R^2 의 변화량을 통하여 비교하여 보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성향은 주로 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인데 이들은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소비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예를 들어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는 소비행복모형에서 설명력을 23.4%를 증가시키는데, 일반행복모형의 경우 4.5%정도만을 증가시킨다. 반면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영향은 소비행복보다는 일반적 행복에 더 영향을 미친다. 즉 소비절제의 긍정적 영향은 소비행복을 통하여 더 나타난 반면 부정적 영향은 일반적 행복을 통하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4.2.2 소비행복의 하위요인에 대한 소비절제성향의 영향

소비행복을 소비생활만족, 소비자율성, 소비자신감으로 나누어 소비절제성향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생활만족에 대해서는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을 제외하고 모든 소비절제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는 소비생활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는 소비생활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만족도의 설명력을 가장 높이는, 즉 소비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소비절제유형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로서 기본모형 대비 설명력을 15.2%를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자율성에는 모든 소비절제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인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와 부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인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자율성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2 변화량이 가장 큰 소비절제성향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로서 기본모형 대비 설명력을 12.7%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신감은 자발적인 소비절제성향인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와 부분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중 소비자신감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소비절제유형은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로서 기본모형 대비 설명력을 27.4%를 증가시키는

(표 5) 유형별 소비절제성향이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회귀모형	베타	p	R ²	R ² 변화량	베타	p	R ²	R ² 변화량
	소비행복 전체				일반적 행복 전체			
기본모형			.073				.075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351 ***		.189	.116	.174 ***		.103	.028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498 ***		.310	.236	.219 ***		.120	.045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408 ***		.227	.154	.216 ***		.118	.043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132 ***		.090	.016	-.018		.075	.000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389 ***		.211	.138	.210 ***		.115	.040
+선택적 소비절제	.361 ***		.194	.121	.215 ***		.118	.043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139 ***		.091	.018	-.258 ***		.137	.062
+강박적 소비절제	-.060		.077	.003	-.307 ***		.165	.091
	소비생활만족				삶의 만족			
기본모형			.084				.071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212 ***		.127	.042	.227 ***		.120	.049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399 ***		.236	.152	.304 ***		.159	.088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392 ***		.226	.142	.299 ***		.154	.083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160 ***		.108	.024	.042		.073	.002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379 ***		.215	.131	.257 ***		.131	.060
+선택적 소비절제	.249 ***		.141	.057	.269 ***		.138	.067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235 ***		.135	.051	-.145 ***		.091	.020
+강박적 소비절제	.015		.084	.000	-.178 ***		.102	.031
	소비자율성				긍정적 정서			
기본모형			.069				.051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343 ***		.180	.111	.260 ***		.114	.063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365 ***		.196	.127	.178 ***		.081	.030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282 ***		.143	.074	.199 ***		.087	.036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074 *		.074	.005	-.001		.051	.000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274 ***		.138	.069	.162 ***		.075	.024
+선택적 소비절제	.359 ***		.188	.119	.291 ***		.129	.078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106 **		.080	.010	-.124 **		.065	.014
+강박적 소비절제	-.133 ***		.086	.017	-.239 ***		.106	.055
	소비자신감				부정적 정서 (역코딩)			
기본모형			.056				.079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358 ***		.177	0.121	-.057		.082	0.003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536 ***		.330	0.274	.054		.082	0.003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387 ***		.194	0.138	.033		.080	0.001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108 **		.049	-0.007	-.078 *		.085	0.006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358 ***		.173	0.117	.092 *		.087	0.008
+선택적 소비절제	.332 ***		.158	0.102	-.030		.080	0.001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015		.056	0.000	-.340 ***		.187	0.108
+강박적 소비절제	-.035		.057	0.001	-.312 ***		.172	0.093

기본모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계소득, 주택보유여부 포함한 모형임.

+는 기본모형에 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을 추가한 회귀모형임.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인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은 소비자자신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일반적 행복의 하위요인에 대한 소비절제성향의 영향

일반적 행복의 하위척도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소비절제성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형 소비절제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소비절제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자발적 유형의 소비절제는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비자발적 유형의 소비절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와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에 대한 영향의 결과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의 결과와 전반적으로 동일하다. 즉 자급자족형 소비절제를 제외한 자발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자발적 유형의 소비절제성향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와 다른 점은 긍정적 정서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유형은 선택적 소비절제성향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아껴 쓰려는 노력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호사스러움을 즐기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을 입증하여 주는 결과이다. 선택형 소비절제를 추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기본모형 대비 7.83% 증

가하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성향은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행복척도와는 달리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소비절제유형은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성향 뿐이다. 즉 삶의 만족이나 긍정적 정서의 증가에 기여했던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자발적으로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및 선택적 소비절제는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강박적 소비절제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는 소비절제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강박적 소비절제로서 기본모형 대비 설명력을 9.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소비절제' 유형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절제는 동기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동기가 다른 소비절제가 소비자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실증적 모형은 소비의 양적 지향을 추구하는 기존의 소비자행동모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소비절제모형'으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표 6>).

첫째, 소비절제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동기

〈표 6〉 소비자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모형에 대한 요약

동기	행복	소비	소비생활	소비	소비	일반적	삶의	긍정적	부정적
	소비절제유형	행복	만족	자율성	자신감	행복	만족	정서	정서
자발적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	+	+	+	+	+	+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	++	++	++	+	++	+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	+	+	+	+	+	+	
	자급자족형 소비절제	+	+	+	+				-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	+	+	+	+	+	+	+	+
부분적으로 자발적	선택적 소비절제	+	+	+	+	+	+	++	
비자발적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	-	-	-		-	-	-	--
	강박적 소비절제			-		--	-	-	-

+ 긍정적 ++ 가장 긍정적 - 부정적 -- 가장 부정적 영향

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8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소비절제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자발적인 소비절제유형으로 (1)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2)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3)자발적인 간소화로 인한 소비절제, (4)자급자족형 소비절제, (5)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와, 부분적으로 자발적인 (6)선택적 소비절제, 비자발적인 소비절제인 (7)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와 (8)강박적 소비절제로 분류되었다. 8개 요인에 의해 소비절제 총 분산의 65.30%가 설명되었으며, 요인별 문항 간 신뢰도는 0.777-0.889로 높은 편이었다. 이를 통하여 소비절제의 동기는 자발적, 부분적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인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소비행복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복을 증가시

키는 소비절제는 자발적인 소비절제이다. 특히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는 전체적인 소비행복과 소비행복의 하위요소인 소비생활만족, 소비자율성, 소비자신감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복의 하위요소인 삶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절제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미래를 위해 또는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비절제는 소비자생활의 만족과 더불어 자율성을 증진시켜주며 소비자신감을 높여 결국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 또한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소비절제유형이다. 재무관리를 위한 소비절제, 근검절약으로 인한 소비절제 및 자발적 간소화를 위한 소비절제는 자발적인 소비절제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동기의 소비절제이다. 즉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소비절제는 소비

행복과 일반적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특히 재무관리의 습관화 또는 내재화는 소비절제로 인한 고통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무관리교육이 중요성을 행복차원에서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셋째,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자발적이지만 사회적 동기가 작동하는 소비절제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와 달리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소비행복과 일반적 행복의 모든 하위영역의 행복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의 소비절제의 경우 부정적 정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환경문제예방을 위한 소비절제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낮추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공익적 동기의 유발이 소비절제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부분적으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의 선택적 소비절제 또한 소비행복을 증진시키며 일반적 행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선택적 소비절제, 작은 사치를 즐기는 것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소비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개발하여 소비절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비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인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는 예상하였던 바대로 소비행복을 감소시킨다. 소비생활만족도를 낮추며, 소비자 자신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비자율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전반적으로 행복감도 낮춘다.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긍정적 정서를 덜 느끼게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느끼게 한다. 비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는 또 다른 유형인 강박적 소비절

제는 소비행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비자율성은 낮게 느끼게 한다. 이 유형의 소비절제는 일반적 행복에는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강박적 소비절제성향이 높으면 행복도는 낮아지며 하위요소인 삶의 만족도 낮아지고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더 높아지고 경험하고 부정적 경험은 증가한다. 강박적 소비절제는 소비행복보다는 일반적 행복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부족이나 강박과 같은 소비자의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자발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는 제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제거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소득증가나 강박성의 치료 등 적극적인 제거노력이 필요하다. 대안적으로는 자발적인 동기 또는 사회적 동기를 강화하는 전략을 함께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절제성향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경제적 부족으로 인한 소비절제성향이 높은 사람에게 (+) 상관이 있는 근검절약이나 재무관리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선택적 소비절제행동의 실천을 권유해본다면 행복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일부 상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절제로 인한 고통보다는 행복에 초점을 두고 소비절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으로 한계로 인하여 조사대상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안정성이 높은 편이었다. 보다 폭넓은 대상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16. 03. 30〉

〈1차수정본접수일: 2016. 04. 21〉

〈게재확정일: 2016. 04. 26〉

참고문헌

- 강이주(2004), 20~30대 소비자의 강박적 구매 성향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소비자학연구**, 15(4), 1-16.
- 글로벌비즈(2015.01.30), **일본 가계, 작년 12월 소비지출 3.4% 감소...9개월 연속 마이너스.**
- 김기욱(2007), 현대 소비자의 소비생활복지: 자기결정성 이론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18(4), 47-65.
- 김기욱(2010), 소비생활복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소비자학연구**, 21(3), 167-194.
- 김시월(2003), 청소년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6), 105-117.
- 김영신(1998), 비행청소년의 강박적 구매성향, **소비문화연구**, 1(1), 1-20.
- 김영신(2001),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 김정훈,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노영래, 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 재활용의식과 재활용 행동에 관한 연구-미혼취업여성의 사장의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 두경자, 홍계옥(1998),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 행동에 관한 연구, 2(1), 91-101.
- 류미현(2014), 한국 거주 중국유학생 소비자의 환경위기 감소를 위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4), 183-204.
- 문화일보(2015.01.05), **소비 증가율 3년 연속 1%대... 올해도 내수 전망 '깜깜'**.
- 문화일보(2015.01.25), **쪼그라든 내수... GDP '가계소비지출 비중' 7분기 연속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폭...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커.**
- 박명숙(2012), 청소년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와 과소비 비성향이 비윤리적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509-522.
- 박민정(2009), 자의식과 물질주의가 미국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과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705-717.
-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인국, 구재선(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성영애(2005), 인천지역 성인소비자의 환경의식과 환경의식적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33-51.
- 송인숙(1991), 도시주부의 강박적 구매행동 및 그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29(3), 263-274.
- 송인숙(1999), 자발적으로 간소화하는 생활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1), 85-95.
- 여정성(1996), 소비자의 에너지절약행동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호응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227-240.
- 유두련(2002), 재활용 행동 집단별 소비자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53-67.
- 이미정, 이수형, 송중호, 홍선현(2011), 물질주의 가치관이 재활용 신념과 태도, 그리고 재활용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논집**, 19(4), 171-181.
- 이민희, 홍은실, 한경순(2009), 청소년의 충동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물질주의와 소비자사회화 영향변인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4), 19-36.
- 이성림, 박명희, 이은영(2008), 전기절약방법의 효과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실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1-11.
- 이철우(1999), 소비욕구, 불황기에 더욱 높아져, 한국광고공사.
- 장현선(2014), 소비자의 소비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 소비행복의 구성요소 및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139-154.
- 조은미, 최남숙(2003), 생활양식이 조장폐기물 재활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1), 119-133.
- 채서영, 임성문(2014), 자기애와 강박적 구매의 관계: 물질주의와 의사결정유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

- 리학회지, 15(1), 123-144.
- 황혜정(2014), 절제된 소비의 작은 탈출구, '작은 사치'가 늘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4.10.01, 30-34.
- Albinsson, Pia A., Marco Wolf and Dennis A. Kopf (2010), Anti-consumption in East Germany: Consumer resistance to hyper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9, 412-425.
- Boujbel, Lilia and Alain D'Astous(2012), Voluntary simplicity and life satisfaction: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consumption desires,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 487-494.
- Chatzidakis, Andreas and Michael S. W. Lee(2012), Anti-consumption as the study of reasons against, *Journal of Macromarketing*, 33(3), 190-203.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Academic Press, Inc., 89-125.
- Forman, N.(1987), *Mind over money*, Toronto: Doubleday.
- Furnham, Adrian and Ryo Okamura(1999), Your money or your life : Behavioral and emotional predictors of money pathology, *Human Relations*, 52(9), 1157-1177.
- Iwata, Osamu(1997), Attitudi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voluntary simplicity lifesty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5(3), 233-240.
- Iyer, Rajesh and James A. Muncy(2009), Purpose of object of anti-consump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2, 160-168.
- Lastovicka, John L., Lance A. Bettencourt, RenéE Shaw Hughner and Ronald J. Kuntze (1999), Lifestyle of tight and frugal: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6, 85-98.
- Nepomuceno, Marcelo Vinhal and Michel Laroche (2015), The impact of materialism and anti-consumption lifestyles on personal debt and account balan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8, 654-664.
- Rick, Scott I., Cynthia E. Cryder and George Loewenstein(2008), Tightwads and spend-thrif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6), 767-782.
- 서재인용

A Study on Anti-Consumption Lifestyles for Consumer Happiness

Young-Ae 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out anti-consumption life styles that contribute the consumers' happiness. For the purpose,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motives. Consumers' motives of reducing their consumption are voluntary or involuntary. Also, the motives are personal or social. This study assumed those motives of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ould affect consumers' happiness. In this study, consumers' happiness included both happiness as a consumer and happiness as a human-being. For the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which were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tilized using SPSS.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eight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ere classified and they explained 65.30% of total variances. Cronbach α of each anti-consumption life style was high ranged from 0.777 to 0.889. 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ere (1)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frugality (2)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financial management (3)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voluntary simplicity (4)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self-production and (5) consumption reduction for environment protection. Partially 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as (6) selective consumption reduction. In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s were (7)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economic deficiency and (8)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tightwadism. Second, it was found that 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s positively affected consumers' happiness as a human-being as well as a consumer. They influenced not only general consumers satisfaction and but also consumers' autonomy and self-confidence. They increased life satisfaction and positive emotions but decreased

Young-Ae Sung / Professor,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negative emotions. Among the 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s, consumption reduction tendency because of financial management had the strongest positive influence on consumers' happiness. Third, consumption reduction for environment protection was anti-consumption life style of voluntary and social motives. This tendency influenced positively consumers' happiness. Especially it contributed consumers' happiness by decreasing negative emotions. Forth, selective consumption reduction was partially voluntary anti-consumption life style in which consumers tried to reduce consumption but allowed a small luxury for satisfac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is strategy can be effective for consumers' happiness. Especially, selective consumption reduction contributed consumers' happiness by increasing positive emotions. Fifth, anti-consumption life styles of involuntary and personal motive, as expected, tended to affect negatively consumers' happiness both as a consumer and as a human-being.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economic deficiency and consumption reduction because of tightwadism decreased consumers' happiness as a human-being more than as a consumer. The strategies of reinforcing the voluntary and social motives of consumption reduction and weakening the involuntary motives are needed. The results imply that reinforcing financial management motive and environment protection motive is very effective for adjusting to new social-economic environment demanding consumption reduction.

Key words: anti-consumption, consumption reduction, voluntary anti-consumption, motive